

# 나주, '2026 나주방문의 해' 맞아 숙박시설 침구류 지원

### 산포면지사협, '꽃처럼 피어나는 효' 나눔 실천



2026 나주방문의해 홍보 포스터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결한 숙박 환경 조성 과 체류형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나선다.

나주시는 관내 숙박시설의 위생 수준 향상과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6 관광·농어촌 숙박시설 침구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행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영업 중인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운

영업소다. 시는 선정된 숙박시설에 분리형 침구류인 이불과 요, 패드, 베개 및 커버 세트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객실당 2세트 이내이며 업체별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비는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구성됐고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7일까지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은 시청 관광과에서 접수하며 농어촌민박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운영 현황과 위생,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택명 기자

담양읍, 복지 사각지대 제로 연합 봉사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 교수팀, 면역치료 연구 착수

담양읍은 최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한전MCS, 담양소방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연합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담양소방서는 화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방 안전 점검에 나섰으며, 한전MCS와 복지기동대원들은 주거 공간에 방치된 대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김준식 복지기동대장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주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을 보며 협력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민정준 핵의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NIIC)가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에 선정된 대형 과제이며,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총연구비는 307억 원 규모다.

국비 240억 원과 지방비 60억 원이 투입되고 전남대와 GIST가 대응 자금 7억여 원을 투입한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민정준 교수팀이 307억 원 규모 난치암 면역치료 연구에 착수한다. /남호경 기자

## 영광 심포 여행, 3천 명 추가 접수...14일 시작



영광 심포 여행·지역 문화 관광지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마감된 5월 영광심포여행 대상자를 오는 5월 14일 하루 동안 총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높고 봄꽃 구경하기 좋은 시기인 만큼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

광 방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월 14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영광 심포여행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를 하게된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숲생이전국국악경연대회'와 21일 개최되는 '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행사, 그리고 2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가 있어 영광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으로써 관광객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5월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시기인 만큼, 영광반값여행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영광을 찾아 휴식을 얻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 법성포 굴비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법성포단오제 4대 종목에 포함된 「법성포숲생이전국국악경연대회」, 「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 등 지역 문화행사가 더해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모집은 봄철 관광 성수와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를 연계해 더 많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진기 기자

## 장성군, 복지사각지대 없애는 '그냥드림사업' 시행

### 19일부터 위기가구에 1인 2만 원 상당 먹거리, 생필품 즉시 지원

장성군이 오는 19일부터 '그냥드림사업'을 운영한다. '그냥드림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1인당 2만 원 상당의 즉석밥, 라면, 생필품 꾸러미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푸드뱅크를 이용하거나 시설·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신분증을 지참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옛 여성회관(장성읍 대화7길 46)으로 찾아오면 된다.

첫 방문 시에는 신분 확인을 거쳐 즉시 물품을 지급하고,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 이후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3차 이용을 희망하면 먼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아야 된다. 장성군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은둔형 고립가구 등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을 고



장성군청 전경 사진

/장성군 제공

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 실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상담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